

權氏列傳

墨子の '겸애' 와 '비공' 은 正生의 '생명' 과 '평화'

평화주의자 묵도(墨徒) 權正生 (시중공파 화천군계 36세 慶秀) 제5편



권정생 문학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生命과 平和. 불에 덴 병아리 '배매기' 처럼 어떤 생명체도 도움이나 위로 없는 살아가지 못해요. 전쟁이 나지 않았으면 배매기가 죽지도 않았을 거고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아궁이에 뛰어들었다가 겨우 목숨만 건진 검정색 병아리 '배매기'의 가슴 아픈 일생을 담은 이야기다. 불에 데는 바람에 부리가 몬드러지고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 배매기떡 걷는다고 해서 배매기다.

- <배매기>의 그림작가 김환영

대동이 성자 묵자의 기본 사상은 '겸애' 와 '비공'이다. 겸애는 예수와 같이 '에기에타(남도 나같이 사랑하자!)'는 것이니 이것은 곧 생명에 대한 경외와 사랑이다.

우리의 正生도 같은 생각을 천진한 동화를 통하여 가장 강렬하게 생명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자본의 이익을 위해 유전자를 변조하고 생명을 도구로 삼아 생명의 부분(장기 매매)을 상품화하는 무리들에 대한 무서운 질타인 것이다.

묵자의 비공(非攻)은 공격(戰爭)을 비난(反對)하는 것이니 곧 평화이다. 전쟁은 늙은이의 이익을 위해 젊은 이를 죽이는 것이요. 가진자가 못가진자를 가장 확실하게 착취하는 극악한 행위인 것이다. 오늘날 전쟁을 위해 날뛰는 무리의 근본은 무엇인가? 무기장사와 환락장사가 가장 고마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고대 이래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본색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정생은 "젊은이들은 스스로 인생을 보람있게 살아야 합니다. 짧은 인생, 좋은 일만 하다 죽는 것도 모자라는데, 무엇 때문에 전쟁 같은 것을 해야 합니까?"라고 말하며 평화를 부르짖는다.

겸애와 비공은 쌍둥이이다. 내가 너를 나같이 사랑하는 데, 무단히 너를 압박하고 공격하겠는가?

생명과 평화도 쌍둥이이다. 생명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죽이는 일(戰爭)을 하겠는가?

전쟁이 없다면 그것이 곧 평화이다. 증오가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며 생명이다.

이렇듯 墨子와 正生은 같은 생각으로 2,500년을 건너 뛰어 손을 잡는 것이다. 이제 유목겸전(儒墨兼全)의 땅 안동(安東)에 정생이 나타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묵자 또한 대동의 땅 산동성 등주(小邾國)에서 태어나 유학을 수련하고 그 문제점을 반박하며 평화와 생명 사랑을 주창했으니 이 얼마나 교묘한 인연인가?

이에 대해 정생은 사자후를 토해낸다.

이 지상에서 정의로운 전쟁이란 절대 없습니다. 하나의 힘이 작은 약자를 집어 삼키는 약마가 바로 전쟁인 것입니다. 자연계의 먹이사슬에서 절대 강자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 잡아 먹으면 대산 하나의 희생하는 것이 자연입니다. 인간들이 자연을 이탈하여 마구잡이로 집어 삼키며 지상의 왕자로 군림하면서 우리는 결국 우주의 약자가 된 것입니다. 이정도에서 우리가 제자리로 찾아들지 않으면 지구의 종말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아름다운 사람 중에서

또한 묵자가 <上楚攻宋(초나라의 송나라 침략을 저지)>시에 초나라 왕의 참모 '공수반'과 대화의 한 장면을 보면 잘 나타난다.

묵자: 아~ 저를 무시하는 자가 있어서 그를 없애려고 하니 도와주시면 10금 즉 황금 600그램을 드리리다.

공수반: 무슨 소리요? 나는 義로우니 그런 짓은 절대 할 수 없소.

(그에게 두 번 절하고)

묵자: 아~ 선생이 '은혜'라는 공성기구를 만들어 송나라를 치려고 하는 데 초나라는 대국이요 송나라는 소국인데 땅이 남아 돌면서 남의 나라의 작은 걸 뺏는다면 '仁'이라 말할 수 없고 이런 잘 못을 군주에게 간하지 않는 것은 불충이며, 간하여 이를 이루지 못하면 최선을 다한게 아니고, 더구나 살인이 나쁜 줄 알면서도 소위 의를 행한다면서 1인 살인은 나쁘고 대량 살인 괜찮다는 논리는 명철한 인간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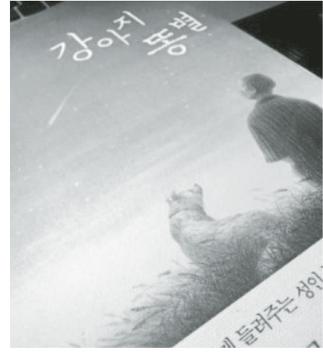
이 처럼 묵자와 정생의 그림자는 이 답답한 세대에 시원한 한줄기 바람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묵자의 절용, 천지 등 10대 사상은 정생의 글과 말속에 그대로 녹아 숨는다. 이

제 미급하나마 먼저 '겸애,비공'을 먼저 소개하고, 그 뒤로 '천지', '절용' 등의 사상이 어떻게 정생의 마음 속에 살아 있는가 하는 것을 약속하고자 한다.

正生은 평화로운 민족통일을 바라고 동족으로서 연민과 사랑으로 北을 대하자고 했고, 그 중에서도 민족의 미래인 북녘의 어린이에게 한그릇의 죽이라도 전해주라고 했으니 그 약속을 위해 그는 호통 불을 키면서 모은 돈(淨財)을 기꺼이 팔았다.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 지? 천상의 정생은 어떤 심정으로 내려다 보고 있는 지? 그대들은 부끄럽지 않은가? 회개의 눈물이 '발뺌이 언덕'을 적시는 날 그도 빙긋이 웃으리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글: 권경민



작가 김환영 병아리 웃임해주기

外權氏列傳 II

안동권문의 외손자 이계전(1)

존양재(存養齋) 이계전(李季甸, 1404-1459)은 안동권씨의 외손자이다. 친할 아버지는 묵은 이색이고 외할아버지는 양촌 권근이다.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친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였던 것이다. 묵은 이색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이계전은 그 중 셋째 아들 이종선(李種善)의 아들이자 사육신으로 유명한 이계(李愷)의 작은아버지이기도 하다.

수양대군이 계유정난(癸酉靖難)을 일으켰을 때 수양왕 도와 권람 등과 정난공신 1등에 녹훈된다. 뿐만 아니라 조카 이개는 성삼문 하위지 등과 함께 세조 제거운동을 일으킨다. 그러나 이계전은 이에 가담하지 않고 신숙주 등과 세조를 도와 좌익공신(佐翼功臣) 2등에 오른다. 이개는 작형(灼刑)을 당하면서도 태연했다고 한다. 수레에 실려 형장으로 갈 때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까마귀 눈비 맞아 희난 듯 검노매라

아광명월이 밝인들 어두우라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라

이계전은 1459년 경기도관찰사 근무 중에 죽었다. 이계전이 죽으니 무덤을 여흥 성산(驪興 城山)에 썼다. 그런데 이때 지관이 무슨 예감이 들었는지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어떤 일이 있어도 봉분이나 비석을 만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한다. 그런데 묵은 이색의 가문에서 어찌 한 가지 지관의 말만을 듣고 돌아가신 분의 묘의 봉분을 만들지 않고 비석도 세우지 못한단 말인가. 하여 봉분과 큰 비석을 세웠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지관 안효례(安孝禮)의 눈에 띄었다 한다.

그런데 예종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생각해 보니 세종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문종이 일찍 죽고 뒤이어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으나 삼촌인 수양이 왕위를 찬탈하고 단종까지 죽였다. 세조 또한 중기 등 피부병으로 고생 고생하다 죽었으니 예종은 세종 사후에 벌어진 일련의 비극적인 일들이 세종의 묘를 잘못 써서 일어난 것이라고 여겨 세종의 영릉을 천장(遷葬)할 것을 지시했다. 영릉은 본래 세종의 유언대로 현릉(태종, 강남구 세곡동) 옆에 자리하고 있었다.

당대 최고의 지관인 안효례(安孝禮)였다. 그런데 당대의 최고 지관인 안효례는 만약 영릉을 천장했다가 왕실에 무슨 병고라도 생긴다면 일족이 몰살당할까 두려워 한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다. 새로운 명당을 찾는 것보다 사대부 중에 잘나가는 집안의 조상묘 중에 하나를 택하기로 했다. 이때 거론 대상이 된 집안이 바로 안동권씨였다. 그 중에 양촌의 셋째 아들 부마 제간공 권규의 묘자리를 적격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아들 권충은 지관 안효례에게 부친의 묘자리에서는 물이 나온다고 말해 극적으로 피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다시 적격지로 선정된 곳이 바로 이계전의 묘자리였다. "예종은 정인지, 신숙주, 한명회 등을 불러놓고 천봉할 땅을 의논하여 정하였다. 또 사친인 안효례 등을 불러서 각각 여흥 성산의 이계전의 분묘와 감곡산과 용인의 금령산의 길흉을 각각 진달하게 하고 이계전의 분묘의 땅으로써 정하였다. 이어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이로써 세종대왕은 이계전의 묘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예종 즉위년 12월 27일 계속)

글 권행완

권애라 기념 사업회(準)회원들의 죽치 권애라 선생 생가 방문



김영방(권여사 친손녀), 권순용(형장년국장), 권오운(사무총장), 권기성(대중회 이사), 권영익(수석부회장), 권혁우(선암중회장), 권병찬(권여사 조카), 김사현(김영방사님남편), 김치현(권여사 조카), 권병기(권여사 조카).

지난 17일 권애라 여사 생가복원 및 기념당 건립을 위한 '기념사업회(준)'의 생가, 선암문중 제사, 입향조 묘소 방문이 권영익 수석부회장의 주관으로 동산리 현지에서 있었다.

그리고 대룡리 시장내 식당에서 권여사를 마지막까지 돌본 손녀 김영방(金映芳)여사가 제공한 중식을 들면서 화기에 애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더구나 권병우 선생이 가져온 사진은 귀한 자료가 되었다.

또 현지의 권혁우 회장이 노익장을 자랑하며 구석 구석 친절히 안내해 주었다.

앞으로 여러가지 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순서는 동산리 생가터 표지석,



권애라와 박순천 1960년3월.

생가복원, 기념당 건립, 교육센터 및 힐링타운 건설, 권애라 전 기발간 그리고 장차 권애라 여사의 동상이 김할란을 제치고 이화여대에 우뚝 서리라고 굳게 믿는다.

그 트레이드 마크, 몸빼에 낚자 조선옷 상의에 쪽진 머리, 그것이 시대의 아젠다로 부활 할 것이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취재: 권요철 기자)

4자성이

權者中正

조맹부체

권자중정(權者中正)



황포관학교 중정검

<묵자> '대취(大取)'에 나오는 말로써 權은 저울의 추로서 中正을 유지하는 중심이다.

경중은 저울로 측정하고 저울은 옳

고 그림이 아니요 오직 중정을 유지할 뿐이니 손가락을 잘라 팔을 살린다면 마땅히 그리 해야하고 이로움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것을, 해로움 가운데서는 작은 것을 취하는게 바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가 나 기 획



대표 권혁준 02)741-7191~3 / 010-5281-7191

집안 어른들께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습니다.

광고, 독자투고, 구독 신청하세요

안동권씨 종보에서는 기업광고, 단체모임 등의 광고와 독자들의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광고, 독자투고, 구독신청 연락처 ❖

☎ 02)2695-2483~4 FAX 02)2695-2485

E-mail ankwon2483@naver.com andongkwonmun24@daum.net

안동권씨 대종회